

서울샘터 교회 주보

2022년 6월 12일

교회력(다해), 29주

대림절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 후 첫째 주일(삼위일체 주일)** 창조절

♣ 오늘의 말씀 -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 16:13)



요즘 석류 꽃이 한창이다. 땅을 뚫고 나오는 풀도 신비하고, 나뭇가지를 비집고 나오는 새순과 거기에 달리는 꽃도 그렇고, 앞으로 맺게 될 열매도 역시 신비롭다. 저 꽃이 조금 지나면 석류알을 촘촘히 가슴에 안은 열매로 변화될 것이다. 시간이 더 가기 전에 옆에 있는 미숙한 꽃은 '적화'해주는 게 좋겠다.



예배처소
공동예배
간식 / 친교
교우모임
목사
홈페이지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대방동) 여성플라자

4:00~5:00

5:00~5:20

5:20~6:20

정용섭 (010-8577-1227, 053-856-1227), 박재진, 이춘우, 김동호

<http://dabia.net/xe/churchs>

이번주는
4층 아트컬리지5

개회예전

예배의 부름 ... 목사

우리 인생 여정에서 남아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그 시간을 의미 충만하게 살아내려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몰두하는 게 최선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모였습니다.

*찬송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 다 함께

*공동기도 ... 다 함께

오소서. 창조자이신 성령이시여!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은 창조됩니다. 성령이시여. 이 세상을 계속 창조해 주소서. 주님이 만드신 것을 새롭게 창조주소서. 흩어지는 것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일깨워주소서. 낱아버린 것은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소서. 창조된 것들과 아직 창조되지 않은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소서. 우리가 다시 열매를 맺을 힘을, 그리고 우리 몸과 영혼이 함께 기뻐할 힘을 주소서. 경직된 것들을 부드럽게 풀어주소서. 불안으로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약동하게 해주소서. 기죽어 있는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패배감에 젖어 있는 자에게 희망을 주시며, 빛을 지고 있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믿음을 갈구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찬송 「함께 부르는 떼제 찬양」 5장 (찬미하여라) 2회 ... 다 함께



***사죄기도 ... 다 함께**

목사: 자비와 긍휼하심이 무한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염치가 없지만, 당신의 자비와 용서를 다시 구합니다. 삶의 연륜이 늘어날수록 부끄러움과 용서받아야 할 일만 늘어납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만 확인됩니다.

회중: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 사람이 만들어놓은 것과 자기의 업적을,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는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사람을 대상화하는 기술을 갖고 닦는 데만 마음을 두고 살았습니다.

회중: 우리를 용서해주시시오.

목사: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일상을 영적으로 풍요롭게 살아 내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에 관심이 분산되어 정작 필요한 영혼의 양식을 등한히 대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아멘!

***침묵기도 ...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다 함께**

***사죄선포 ... 목사**

목사: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지난 2천 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고백한 모든 잘못은 용서받았으니 그 일로 더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함께: 아멘!

***영광찬송 『한국교회와 리마 예식서』에서 ... 다 함께**

감격하여 이강민

영 - 광 을 주 님 께 영 - 광 을 주 님 께

높 이 계 신 주 님 께 영 광 -

***평화인사 ... 다 함께**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회중: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목사: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찬송 「우리 가락」 128장 (성령이여 어서 오소서) 2회 ... 다 함께

주현신

주현신

성 - 령이 여 어 서 오 - 소 서 그 리 스 도 의 영 이 여

오 - 소 서 성 - 령이 여 해 방 의 영 이 여 우리

숨 곁 에 언 제 나 함 께 하 소 서 사 - 랑 에 목 - 마 른

지 친 가슴 마 다 당 신 의 꿈 을 그 리 는 가 난 한 마 음 에

강 물 처 럼 넘 치 도 록 오 소 서 들 불 처 럼

불 태 우 며 오 소 서 성 - 령이 여 해 방 의 영 이

여 우리 숨 곁 에 언 제 나 함 께 하 소 서

말 씬 예 전

설교전기도 ... 다 함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참된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 대한 염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걸돌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산만해지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십시오.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째말씀 잠언 8:1~4, 22~31 ... 김기범 집사

성서교독 시편 8:1~9 (새로운 예배 시편 번역) ... 다 함께

온세상에 가득하다 아름다운 주의이름 하늘위에 드높도다 주의영광 주의위엄
-아이들이 노래하고 젖먹이도 찬양하니 주께맞선 원수들이 잠잠하게 되는구나
 주님께서 손수지은 주의하늘 바라보며 주님께서 달아놓은 달과별을 바라보네
-인간들이 무어길래 이다지도 생각하고 인간들이 무어길래 이다지도 돌보실까
 우리주님 인간들을 높은자리 앉히시고 온갖존귀 온갖영광 관을씩워 주시었네
-주님손수 지어내신 모든것을 내어주고 그것들을 다스리라 발아래에 두시었네
 양과소와 야생짐승 하늘새와 바다고기 모든생명 두루두루 발아래에 두시었네
-여호와여 주의이름 온세상에 충만하고 주의영광 온세상에 아름답게 빛을내네

둘째말씀 로마서 5:1~5 ... 김기범 집사

*셋째말씀 요한복음 16:12~15 ... 김기범 집사

*응답찬송 새로운 예배찬송 492장 (아멘) ... 다 함께



설교 **성령이여 오소서!** ... 박재진 목사

설교후기도 ... 설교자

찬송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 다 함께

봉 헌 예 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 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금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2회 ... 다 함께

중보기도 ... 목사

주기도 ... 다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알림 ... 목사

파 송 예 전

*마침찬송 4장 (성부 성자와 성령) ... 다 함께

*위탁의 말씀 ... 목사

성령강림 후 첫째 주일이면서 삼위일체 주일인 오늘 공동예배가 끝났으니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의 역사에 두 발을 단단히 내리지만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생명의 능력인 영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삽니다.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할 뿐만 아니라 온유하게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축복기도 ... 목사

*후주 ... 반주자

[알리는 말씀]

1. 코로나19가 이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상황입니다. 지난 3월 첫 주일부터 대면 예배를 중단한 후 수개월만에 오늘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반갑고 기쁜 마음을 나누기 위해 예배 후 전교인 식사 모임으로 함께 합니다.
2. 6월 19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담당자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6월 26일에는 이길용 교수와 함께 하는 "루터 이야기"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직 신청 안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담당: 최선아 집사)

지난주일 헌금 250,000원 (선교헌금 :100,000원, 통장헌금 : 150,000원)
(2022/06/05) 헌금입금계좌 : 카카오�뱅크 3333-14-2466417 박수진

6, 7월 예배준비

	예배일	예배 인도	성경봉독	헌금 / 안내
성령강림후 2주 6/19	4층 아트컬리지5	정용섭	오미영	이기령 양혜선 오미영
성령강림후 3주 6/26	4층 아트컬리지5	김동호	윤혜정	이기령 양혜선 오미영
성령강림후 4주 7/3	4층 아트컬리지5	이춘우	박수진	이기령 양혜선 오미영
성령강림후 5주 7/10	4층 아트컬리지5	정용섭	이유선	이기령 양혜선 오미영
성령강림후 6주 7/17	4층 아트컬리지5	박재진	김기범	이기령 양혜선 오미영
성령강림후 7주 7/24	4층 아트컬리지5	김동호	오미영	이기령 양혜선 오미영

6월 5일 설교 "하나님의 영과 양자의 영" (롬 8:14~17)" 발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여전히 종으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설적으로 종은 그런대로 훌륭합니다. 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쓰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자녀'는 아니고, '종'도 못되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은 '고아'처럼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할 대상도 없으며, 나름으로 자기 인생 철학 가운데서 모범적으로 살려는 의지도 부족하고, 그냥 홀로 외롭게 고아처럼 각개전투하듯이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더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겠다는 생각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 일에 인생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아들과 딸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 안으로 깊이 들어갈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런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일상에서 자녀로서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우선 '종으로서의 삶'과 '자녀로서의 삶'이 겹쳐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는다고 표현했습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자녀로서의 삶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울부짖는 방식으로 짧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체포당하던 날 밤 겟세마네 동안에서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여!"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힘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종말론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결속을 가리키는 은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과 완전하게 결속되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은 종말에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의 마지막 절인 17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영광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를 믿음으로써 그 영광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 영광에 도취해서만 세상을 살지는 못합니다. 모든 인생살이 문제가 깨끗이 해결된 듯이 허공에 뜬 채로 살지 못합니다. 그런 영광주의 신앙이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종종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게 답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온갖 비루한 일들이 벌어지는 땅에 두 발을 단단히 뿌리 내려야 합니다. 미래의 영광과 현재의 고난 사이에 놓인 종말론적 긴장감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 제자로서 이렇게 살도록 우리는 이끄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고, 양자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우리 자신만의 힘으로는 죽었다가 깨도 이 긴장감을 온전히 버텨낼 수 없습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이 "Veni Sancte Spiritus"(오소서 성령이여!)라고 기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